

# 광산구,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과학·체감행정 선도

광주 광산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 등으로 과학·체감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데이터 속에 담긴 시민의 요구와 목소리를 주목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가 구정 곳곳에서 스며들고 있는 것이다.

29일 광산구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올 8월까지 각종 정책 및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를 분석한 사례는 총 144건에 달한다. 민선 7기 핵심 분야인 안전, 경제를 비롯한 복지, 여성, 청소년, 교통 등 다양한 영역에서 데이터 활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광산구의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정은 데이터의 수집부터 활용까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으로 이뤄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로 진입하면서 데이터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광산구는 올해 초 '광산형 데이터'를 구축하고, 데이터 수집·정제·관리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데이터 수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정제 과정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고, GIS 데이터 분석시스템과 공동활용 빅데이터 표준분석 플랫폼 등 자동연계를 완성했다.

이같은 광산구의 노력은 '2020년 공공데이터 제

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광주시 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최고 등급을 받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광산구는 데이터 행정이 구정 전반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행정 시스템을 확대하고 있다.

행복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행복지표가 대표 사례다. 추상적 개념인 '행복'을 계량화해 측정하고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I, Business Intelligence) 도구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주요 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도 향상이 눈에 띈다.

모든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광산구 관련 통계 및 주요 현안과 관련된 주요 데이터를 BI 도구인 '태블로'를 이용하고 공유해 능동적인 데이터 활용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활용한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통계조사 및 우리동네 상권정보 서비스'는 최근 호남지방 통계청이 주관한 '2021년 지역통계 우수사례 공모'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이라는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통계 데이터를 적극 활용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광산구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경제

선진적 시스템 기반 데이터 분석 3년간 144건

'광산형 데이터' 구축...상권정보·피해지원

위기가 촉발되자 가장 먼저 상권 매출 실태조사(코로나19 피해지원 통계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자영업자 93%가 절반 가까이 매출이 줄고, 특수형태종사자인 강사, 일용근로자의 소득도 각각 95%, 49% 감소한 것으로 파악했다.

광산구는 이 같은 통계를 바탕으로 관내 중소기업인을 돕기 위해 민·관·산·학·연 44개 기관 및 단체와 광산경제혁신회의를 결성, 1% 희망대출, 사장님 활력지원금, 소상공인 냉방비 지원 등 맞춤형 경제혁신 처방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 같은 광산구 과학행정의 대표적 사례가 우리동네 상권정보 서비스다.

인허가데이터, 카드 매출 데이터, 통신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광산구 관내 사업체의 창업, 폐업현황, 창업생존률 등을 시각화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창업 희망자에게 필요한 상권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광산구가 골목상권 지원 정책을 발

굴하는 데 있어서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여성 안심 귀갓길 환경 개선, 어린이 교통사고 데이터 등 분석을 통한 교통안전시설물 '노란발자국' 설치, 송정권 청소년문화의집 사전 수요자 요구 조사 등 데이터를 활용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민선 7기 데이터 과학행정은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민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다양한 성과를 만들어냈다"며 "데이터에 기반한 구정 시스템을 더욱 확대하고 발전시켜 시민의 행복한 삶을 뒷받침해 가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기후위기 대응 이야기 모임에 참여하세요”

광주시, 시민 실천운동 확산 위해 11월까지 진행

광주시와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기후위기 대응 시민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 이야기 모임에 참여할 시민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야기 모임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시민 참여 확산을 위한 것으로, 지난해 광주시민총회 선정의제인 ‘기후위기 대응 시민실천 운동’ 일환으로 추진됐다. 모임은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시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대면

과 비대면 병행 실시한다.

모임에서는 ▲기후위기 현상 ▲기후위기의 원인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과 앞으로 시민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실천방안 및 정책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모임 전후 시민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인식의 변화도 파악한다.

광주시는 기후위기 대응 시민실천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54개 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해 매달 회의

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민대상 다양한 교육, 활동가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에너지, 자원순환, 도시녹화, 음식문화 개선 등 시민이 실천과제를 선정해 매주 금요일 시내 곳곳에서 시민대상 홍보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모집은 모임 시작 전까지 계속할 예정이며, 참여 신청은 참여 홈페이지(<http://naver.me/GQ4V4gaZ>) 또는 전화(062-613-4175)로 하면 된다.

주최의 광주시 혁신소통기획관은 “기후위기 대응은 정책 변화는 물론 시민의 자발적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후위기 대응 이야기 모임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산구 외국인 백신 자율접종 한 달간 5550여 명 참여

광주 광산구가 코로나19 집단 면역을 앞당기기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한 외국인 자율접종이 예상보다 훨씬 많은 5550여 명의 참여를 이끌어 내며 대 성공을 거뒀다. 이를 발판 삼아 광산구는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18세 이상 외국인(90일 이상 체류)의 예방 접종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29일 광산구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지난 18일까지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31개국 외국인주민 3544명(30세 이상 90일 이상 체류 외국인)에 대한 안전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이는 당초 목표한 2805명의 126.3%를 초과 달성한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23~24일에는 30세 미만 외국인 주민 1811명이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마쳤다. 당초 계획한 1500여명을 초과한 경우로 같은 기간 광산구보건소에선 199명의 외국인주민에게 아스

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다.

광산구는 지난 4일부터 24일까지 접종에 참여한 광산구 외국인주민은 총 5554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지역 확산 차단과 외국인주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건강보험 가입이나 등록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접종 기회를 보장한 광산구의 적극 행정이 그동안 숨어있던 외국인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낸 결과로 풀이된다.

백신을 맞으려는 외국인주민이 몰리면서 광산구는 광주시로부터 400명분 안전 백신을 추가 수령하기도 했다.

광산구는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활용해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주민의 백신 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시 광산구 월곡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최근 외국인주민이 안전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 ‘메타버스 타고 월봉유랑하자’



문화재청, 지역문화재 활용 공모 광산구, 5개 사업 선정 5억 지원

광주 광산구는 “문화재청 ‘2022년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공모에서 총 5개 사업이 선정돼 국·시비 5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공모 선정된 사업은 ▲향교·서원 문화재활용사업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생생 문화재사업 ▲ICT를 활용한 실감콘텐츠 개발지원사업 등이다. 월봉서원은 9년, 무양서원은 7년, 고택활용은 3년 연속 선정이다.

국가 문화재인 신창동 유적을 활용한 ‘광주 신창동 유적 타임캡슐을 열어라’와 포스트코로나에 대응한 실감형 체험 플랫폼인 ‘메타버스 타고 월봉유랑하자’가 신규로 포함됐다. 특히 ICT 실감콘텐츠는 가상현실 등을 활용해 월봉서원을 메타버스로 구현, 새로운 문화재

향유 방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국에서 13개 사업만 선정됐고, 광주에서는 광산구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향교서원 분야에 선정된 사업은 ‘2022, 다시 고봉을 만나다’, ‘무양 in the city’로 각각 월봉서원과 무양서원을 활용한 다양한 인문교육, 체험, 공연, 포럼 등을 추진한다. 내년에는 고봉 기대승 서세 450주년이 되는 해로, 고봉선생의 사상과 철학을 재조명할 교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택 종갓집 분야인 ‘광산사계묘-두 날의 몽상(夢想)’ 사업은 용아생가, 김봉호가족, 장덕동 근대건축에서 가족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재해석한 프로그램을 가족별로 운영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광산구의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문화체험 공간을 마련하고 지역문화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

###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